

경로당, 영화관으로 무한 변신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영화관'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농한기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홍보 동영상과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 보는 날! 찾아가는 경로당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경로당 영화관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사업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주민 주도적 심·신 건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됐다.

25일 장계면 신동마을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는 영화 '수상한 그녀'가 상영돼 25여명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동마을 어르신은 "이날 평생 영화관은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시 너무 좋고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스무살 꽃 처녀가 된 것처럼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하루 2개



25일 장계면 신동마을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열린 찾아가는 영화관에서는 영화 '수상한 그녀'가 상영돼 25여명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마을에서 운영되며, 의료원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휴한기, 휴서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 교육실을 이용해 '영화가 있는 날'을 정해 운영함으로써 남녀 노소 누구나 영화상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봉옥 의료원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앉아 건강도 챙기고 영화도 관람하면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장계면건강생활 지원센터(352-8700)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확대

진안군보건소에 60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신청

진안군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릎관절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확대했다.

진안군보건소에 종전 65세 이상에서 올해 60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하기로 해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수준도 종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급했던 것을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을 확대 해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후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노인 의료나눔재단 심사를 거쳐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보건소 방문 보건팀(430-85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독려

무주군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단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자가 28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변호관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를 통한 납부독려 메시지를 전송했으며, 3월 4일부터 29일까지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변호관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1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징수팀 전원으로 특별영치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6개 읍·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돌며 모바일 변호관영치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차량 등록 변호관 영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4건 이상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불법 명목차량(대포차량 등)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관계자는 "2월 말 현재 우리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 5천 3백여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한다"라며 "군 재정 악화는 물론,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실정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 모집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장영수)은 지역인재 육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증액된 장학금 7억원을 지원하고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단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학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장학금 증액과 선발분야를 넓혔다.

2019년도 장학금 선발대상자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대학 신입생반값 등록금, 대학성적 우수 장학금, 희망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비진학 창업취업학원비 지원 등이다.

신청 및 접수는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접수처는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영수 이사장은 "앞으로도 애향교육진흥재단은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3-350-2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가야문화 발굴단 일자리 창출 노력

취·창업교육 실시

장수군과 장수군로컬잡센터는 27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미취업자 30명을 대상으로 가야문화 발굴단 일자리 취업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장수가야 문화의 본격적인 문화재 발굴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취

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삼봉리·삼고리 고분군, 대적골 제철유적, 침령산성, 침곡리 봉수 등 다양한 유적지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에는 한국도로공사, 전북 창조경제혁신 센터와 연계해 취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장수군민 50명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취업관련 창업 교육을 실시한다. 군청 군민회관에서 진행되는 교육

에서는 장수군의 74.8%인 인야를 활용한 입업소득개발, 마케팅, 조정, 창업과정 등을 교육한다.

이길재 과장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취·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업을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구인·구직자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장수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2만8383필지로, 이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유재산 불법점유, 불법전대(공유재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차한 경우), 임차 목적 외 사용, 임차한 공유재산 미사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단점용 및 위법사용에 대

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 행정조치를 취하며, 재산의 사용목적 적정성 확인 및 재산관리관 변경, 유류재산 활용방안 강구 등 행정조치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향상과 세원 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무풍면 주민들 숨씨 뽐내

27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무주군 무풍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27일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는 김연홍 무풍면장과 무주군의회 이광한 부의장, 육영식 주민자치위원장 비롯한 2019년도 참여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발표회와 작품전시 등을 함께 즐겼다.

발표회에서는 우크렐레와 실용댄스(스윙마마), 노래교실, 풍물(승지농악단)팀이 무대에 올라 그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으며, 주민자치센터 1층 로비에는 손뜨개와 한지공예작품 50여 점이 전시돼 호응을 얻었다.

육영식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라 내용도 알차다"라며 "우리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고려해 프로그램 선택의 폭을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전했다.

무풍면에 따르면 손뜨개와 한지공예 작품들은 2주 간 전시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두루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공연 무대에 섰던 주민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농사일로 고되 기만 한 일상의 큰 힘이 됐다"라며 "떨려서 제대로 실력발휘는 못했지만 가족과 이웃들 앞에서니 뿌듯하고 좋다"라고 전했다.

무풍면에서는 올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실용댄스와 스마트폰 활용, 우크렐레, 한지공예, 손뜨개, 노래교실이 2월 말까지 종료되고 풍물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테니스와 그라운드포폴, 배드민턴, 게이트볼 교실이 3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